

2019. 10. 27(2004.1.4./2007.6.3./2011.10.16./2015.10.4/2016.4.3)

<후세대교회론1- 교회의 기초와 권세와 사명>

마16:13-28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이며 권세의 핵심입니다.

I.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오직 은혜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 갖는 주요한 질문 중 교회와 관련한 내용은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가령,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교회가 이러 저러해도 되는가, 교회의 종류(교파)가 왜 이리 많은가, 교회의 조직과 운영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주일예배만 출석하면 되지 교회의 조직과 활동에 꼭 참여해야 하는가, 지금도 교회가 충분히 많은데 또 교회의 개척이 필요한가,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처럼 교회와 관련된 고민이나 질문은 기독교 신앙에서 결코 소외될 수 없는 영역이기에 사도 바울 역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교회를 향한 염려를 강하게 드러낸다.

<고후11:28> “다른 것들은 접어 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16년 전 후세대교회가 개척을 준비할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질문했었고,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하나씩 그 답을 확인하였었다. 그러면서 개척이후 첫 한 달간의 주일 공예배 설교를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라는 주제로 기획하여 교회의 기초와 권세와 사명, 교회가 누리는 복, 교회를 이루며 힘써야 할 영역, 교회의 성장 등으로 진행했다. 이후 후세대교회에 등록하려는 자들에게도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므로 기독교 신앙과 교회관을 점검하고 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회는 결코 배제될 수 없는 필연적인 영역이고, 교회에 대한 이해가 동일하지 않을 때 깊은 신앙적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수년마다 주일 공예배에서도 다시 설교를 반복하며 교훈하고 있다. 이번이 여섯 번째 동일한 내용의 설교이다(2004-1월, 2007-6월, 2011-10월, 2015-10월, 2016-4월).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교회의 기초와 사역과 권세를 밝히시는 내용이다. **마태복음**은 구약의 계시에 따라 오셔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생을 초대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성도(제자)의 삶(28장)을 소개한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진행에서 본문은 결정적인 전환점이며 결론을 미리 안내하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 곧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구원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기 전에(21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며, 지상에서는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16:1~12)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당대의 종교지도자들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그들의 영향 속에 있는 유대사회가 붙들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는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 확인되는 종교적 열정과 자기 의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변질된 거짓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문에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교훈하신다. 결국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이해할 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것이다.

II. 내 교회를 세우리라!(교회의 기초와 권세와 사명)(13~19절)

먼저, 13~14절은 예수님이 빌립보지방의 가이사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고 하는지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답했다.

사실 **마태복음**만 살펴봐도 유대 사회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별로 긍정적이지 않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자 죽이려고 모의했고(12:14), 우두머리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 쫓는다고 하거나(9:34, 12:24), 하늘로부터 왔다는 증거를 몇 차례 요구하였다(12:38, 16: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민중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가 있었기에 제자들은 그 중 몇을 선정해서 보고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민중들은 세례자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이해했고(마14:5)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예수님의 설교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이었기에(마3:2&4:17)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이해했을 수 있다(마14:2). 또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는데(왕하2:1~12) 유대사회는 말라기의 예언(말4:5~6)을 더하여 종말에 그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담당할 것으로 이해하면서 예수님에게 적용했을 것이다. 예레미야 역시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을 설교하다가 술한 고난을 당했기에 유대의 민중들은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여겼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설교나 가르침은 특별해서(마7:29)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선지자)로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이상의 표현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민중들 사이에서 분명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는 자로 거론되고 있었음에도 충분하거나 완전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15~16절에서 동행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며 유대사회의 평가가 아닌 그들의 대답을 요청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했다.

그 대답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고백이면서 이전에도 그가 제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것처럼(14:28, 15:15 등) 제자들의 의견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기름부음을 받았다**)에 대한 그리스어 표기로써 다윗의 후손이라는 단어와 함께 당시 유대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또한 얼마 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심한 풍랑으로 곤란을 겪을 때 물 위를 걸어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14:33), 특히 생명 없는 잡다한 우상과 비교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17절,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으로 부르시며 복되다고 선언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혈육과 땅의 경험이나 질서로는 결코 알 수 없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된 복이다.

한편, 요1:42에서 예수님은 시몬(**갈대, 연약함**)을 처음 만났을 때 본명 대신 **게바(=아람어=그리스어:베드로, 바위)**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기에 이후로 줄곧 베드로로 불렸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시 그의 혈육적 부친과 함께 본명을 부르시므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얼마나 특별한지 강조하셨다. 요1:12~13, 3:6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믿음은 인간적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듭난 자만이 갖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8~19절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인식과 고백을 바탕으로 ‘너는 베드로다’고 선언하시며 그 돌(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지옥의 문이 이길 수 없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어 이 땅에서 잠그고 열면 하늘이 잠기고 열릴 것이라는 특별한 권세와 사명을 주셨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교회(ἐκκλησία **에클레시아**)는 구약에서 여호와와 회중(קהל **카할**)을 가리키는 단어와 동일하다. 그러기에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내 교회**)이다. 전통적으로 로마천주교회는 교회의 기초인 돌을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 그가 교회의 머리이자

1대 교황으로, 이후에 등장하는 교황들이 교회의 최고 주권자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공동체적 고백이었기에 사도들을 교회의 시작으로 이해한다(엡2:20, 계21:14). 물론 그들의 인간적 실체가 교회의 기원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인식하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완전한 기초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전3:11,23> “아무도 이미 놓여 있는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엡2:20>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의 구원자이며 만물의 심판자(=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과 복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거나 폐하여지지 않을 권세, 사탄이나 죄나 고난이나 죽음마저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권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겐 당연히 하늘나라가 열리지만 거부하고 부정한다면 하늘나라도 닫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의 성도와 교회는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순결하며 말씀을 순전히 따를 때 형성된다. 그 외 건물크기, 성도의 수와 재정규모, 프로그램이나 조직 등은 모두 부차적인 요소들이다.

III.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따르라!(교회의 건강성)(20~28절)

그때부터 20~21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이르셨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아직도 유대사회는 예수님을 대속으로써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며 다양한 오해와 위협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의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아 죽고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다. 이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할 구원사역의 절정을 처음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전체의 전환점이며 핵심적인 교훈을 왜 하필 빌립보지방 가이사랴에서 진행하셨을까?(13절) 본문 이외에는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한 기록이 어디에도 소개되지 않는다. 특이하게도 그곳에서 예수님은 단7:13~14을 인용하여 스스로를 인자라고 은연중에 표현하시며 하나님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드러내셨다. 지리적으로 그곳은 갈릴리 호수 북쪽 40km 지점 혈문산 기슭에 위치하였고 갈릴리로 흐르는 요단강의 발원지다.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주었으며 그의 죽음 이후 아들인 헤롯 빌립의 영토가 되어 로마 황제(가이사)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 빌립은 지중해안가의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었다. 종교적인 면으로 보면, 고대에는 바알을 섬겼고, 그리스 시대엔 판(Pan)을 섬긴 곳으로 예수님 당시에 판 신전과 함께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당시 유대 땅 안에서 가장 이방스럽고 권력지향적이며 세속성을 상징하는 도시를 방문하여 그리스도로서 구원 사역의 절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출정식을 진행하시는 것이다. 마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온 열방 모든 족속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

(28:19)을 암시하듯이 말이다. 게다가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눅9:18**은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으로 설명한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향하여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논하며 차근차근 걸음을 준비하셨음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22절**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듣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극구 부인한다. 이어서 **23절**은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이라고 책망하시며 뒤로 물러나라고 책망하신다. 베드로는 조금 전의 고백 때 들었던 복된 자에서 사탄으로 급격하게 추락하였다. 곧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자로서 선생의 고난스러운 죽음 소식을 듣고 가만있을 자가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헤아리지 않는, 그저 인간적인 충정과 열정만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26절**은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지상의 성도와 교회에게 영원한 헌법이 될 만한 교훈이다. 곧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의 인생 너머에 이어질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소망하며 철저히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한다. 1세기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 틀이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동일한 의미의 반복적 강조이다.

그러면 **27절**, 예수님이 다니엘의 예언처럼 하나님께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권을 받은 인자로서(**단 7:13~14**)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 명백히 갇아주실 것이다. 물론 **28절**은 살아서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보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과 하나님께로 가는 승천을 목격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 그 일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신 영광이며, 영원한 왕으로서의 통치와 재림과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고 승천하여 모든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시며 장차 영광스럽게 다시 오심으로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따르되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철저한 영적 싸움을 진행할 때 세워진다.

IV. 나오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증거하는 사람들!

후세대교회가 매주일 발행하는 주보의 표지 사진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이다. 실제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다(**행2장**). 본문의 교훈을 따라 교회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규모이든지, 어떤 구성원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공적으로 예배할 때 교회가 된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심판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둘 때 죄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가 위협할 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신령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며 예배자로 성숙해간다. 우리의 매주일 공예배가 바로 교회임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증거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름이 상당히 위축된 시대를 살지만 부디 교회라는 신령한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롬8:35~39>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

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삶 속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의 따르는 경건한 삶으로써, 주일의 공예배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도 성실히 참여하므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교회의 영광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벧전2:11~12>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착하게 사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선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것입니다.”

* 찬송가 210장